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25.(수) 17:00
(지 면) 2026. 11.26.(목) 조간

도로 살얼음으로 터널 안 연쇄 추돌·화재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 실시

- 겨울철 터널 내 대형·복합 도로재난에 대비한 관계기관 통합 대응 역량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5일(수), 경기도 사패산터널일원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 소방청, 경찰청, 서울고속도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나 도시 기반 시설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발생하는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을 앞두고 터널 출입구 부근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하고,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차량과 적재물로 번지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밀폐된 터널에서 열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파손된 차량들로 구조대 진입이 어려워지는 악조건 속에서, 이용자 대피,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관계기관의 통합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입구 부근에서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진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시작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119 신고와 터널 관리사무소의 상황 인지로 관계기관에 상황이 전파됐고, 즉시 도로관리기관 초기대응반과 소방·경찰 선착대가 현장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속도로㈜는 터널 진입 차단과 전광판 안내, 비상방송을 통해 후속 차량 진입을 막고 운전자와 승객의 대피를 유도했다. 터널 내 환기설비를

가동해 연기 배출을 지원했으며, 경찰은 터널 출입구를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며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상황을 접수한 후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각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도로 통제와 우회 정보를 알렸으며, 고양시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현장 대응을 지원했다.

화재가 주변 차량과 터널 내부로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피해 상황과 인명구조, 응급의료 지원, 수습·복구 대책 등을 총괄·조정했다.

소방청은 대응 단계를 상향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 신속한 고립자 수색과 차량에 갇힌 탑승자 구조 등을 통해 터널 사고에 필요한 대응 절차와 장비 활용을 확인했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함께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근 의료기관의 가용 병상을 확인해 중상자를 분산 이송하고, 화상·연기 흡입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료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터널 구조물의 손상과 붕괴 위험을 점검해 구조 활동의 안전을 지원했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이후에는 고양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차량 견인, 잔해물 제거, 제설·결빙 방지 조치와 시설 복구를 추진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 통행 재개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임시구호소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구호물품 제공과 외국인 피해자 통역 등 현장 수요에 대응했다. 사고 원인조사와 피해자 심리 지원 등 재난 이후의 수습 과정도 함께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터널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신속한 진입 통제와 대피 유도, 관계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겨울철 터널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 괄>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	책임자	과 장	임충현 (044-205-5291)
		담당자	사무관	김형기 (044-205-5298)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정원 (044-205-6330)
		담당자	사무관	김종훈 (044-205-63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